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의 저항

이 미 화*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II. 아니마의 비극성 인식과 2세대 저항 |
| II. 남성위주 성의식 파기와 1세대 저항 | IV. 주체적·사회적 자립과 3세대 저항 |
| | V. 나오며 |

국문초록

박경리의 『토지』는 일제가 교묘한 공포조작을 통해 침략과 통제를 자행함을 보이고 있다. 일제는 직접 조선인의 원망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제앞잡이나 밀정을 통해 조선의 내부분열을 유도하였다. 이 글은 피식민지 조선에 작용한 권력과 감시의 통제 아래에서 조선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살폈다. 특히 석이네와 같은 하위주체 여성의 삶이 결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호명 받지 못한 조선여인이지만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여성의 삶은 권력에 대한 순응과 저항이 교차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여성은 어떤 파놉티콘의 감시 아래서도 정형화 유형화되지 않으며 다채롭고 차이나고 지연되는, 결코 틀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 부경대학교 강사

주제어 : 박경리, 『토지』, 여성하위주체, 권력, 감시, 공포조작, 조선 여성, 순응, 저항

I. 들어가며

박경리의 『토지』는 조선민중이 자주국가에서 주권을 침해당하는 국가로 전락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삶의 양태가 달라져 기본적 인성마저 파괴되는 실정을 그렸다. 이민족의 주권 침탈은 믿을 수 없는 풍문으로 접근한 후, 강압적인 개인의 등장으로 현실을 인식시켰고, 총을 겨누는 공포를 확산하여 조선사회를 지배했다. 박경리는 일제가 교묘한 공포조작을 통해 일망감시¹⁾를 구축하고 침략과 통제를 자행함을 보인다. 일제가 자행한 파놉티콘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구나 감시당한다는 강박관념을 유포해 민중의 자기 통제를 유발하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게 만들어 규율준수의 불안 속에 살게 한 파놉티콘의 전형적 유형이다.

『토지』는 일제의 조선통치가 개화개명정책에 동조하며 앞장선 양반에게서 시발되어, 하층민의 다양한 욕망을 채워줄 것이란 사탕발림으로 일제앞잡이나 밀정을 양산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인다. 일제는 직접 조선인의 원망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제앞잡이나 밀정을 통해 조선의 내부분열을 유도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내부분열은 검은 얼굴에 하얀 가면을 쓴 일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였고, 일

1) 권력은 자기 모습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는 일망감시의 구조를 통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었다. 일망감시장치는 육체적으로 잔인하게 처벌하는 방법보다 감시하는 방법에 의존하여 육체를 길들이는 권력의 한 전략적 방법이다. 벤담의 일망 감시시설Panopticon은 이러한 조합의 건축적 형태이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자,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2004, 13~309쪽.

부 조선인 스스로 내선일체화를 지향하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쉽사리 동화되지 않았다.

본고는 피식민지 조선에 작용한 권력과 감시의 통제 아래에서 조선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흔히 제3세계 여성의 삶은 억압당하는 집단으로만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기에 『토지』의 여성들이 존엄한 생명체로서의 개별적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밝히는 일은, 제3세계 여성을 문학작품 내에서 왜곡²⁾해왔던 기존의 현상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의 여성하위주체³⁾ 석이네가 살아온 삶을 중심으로 하여, 즉 석이네가 아내로 살았던 시대를 1세대로, 어머니로 살았던 시대를 2세대로, 할머니로 살았던 시대를 3세대로 설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석이네를 중심으로 살피는 이유는, 석이네는 박경리가 밝히고 있듯이 “모두 힘들게 살아왔고 비극적 삶을 끝낸 사람들도 많”은데, 유독 “불행

2)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왜곡이란, 제3세계 여성은 억압당하는 집단으로만 묘사되는 것이다. 즉 특정 역사를 지닌 개별 여성으로서의 물질적 실재는 잊혀진 채, 모두 억압받는 그룹으로 동질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찬드라 모헨티는 제3세계 보통 여성이 성적으로 제한된 여성이라는 젠더와 제3세계의 존재이기에 무지, 가난, 교육받지 못한, 인습에 얽매이는, 가족 지향적인, 희생적인 인물로만 제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는 교육받고 현대적이며 자신의 육체와 성을 관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 서구여성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여성은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실천 내에서 만들어져야 올바른 것이다. 유제분 엮음, 김지영·정혜옥·유제분 옮김,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현대미학사, 2001, 25~97쪽.

3) 여성하위주체의 출발점은 맑스의 프롤레타리아에서 시작된다. 여성하위주체는 제3세계의 부르주아 지식인 여성과 구분되는 하층여성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 위주의 자본주의 체계에서 중심을 차지하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포괄하여 성, 인종,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로 확장된다.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96~117쪽) 가야트리 스피박은 영국 제국주의와 인도 가부장제하에서 이중으로 억압당하는 인도 여성들을 억압과 예속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말을 걸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출판사, 2006, 60~66쪽)

의 여신은 석이네 식구들에게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르”고, “조선의 순결한 딸들은 어떤 업을 짊어졌기에 일본군대 야수 같은 몸뚱이 밑에서 살이 썩어 가야만”(21권304쪽)⁴⁾ 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석이네와 같은 하위주체 여성의 삶을 고찰하다보면 사실적인 제3세계 여성의 삶이 결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하위주체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는 조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위계층이든 하위계층이든 누구나 일제의 억압과 감시를 벗어난 삶을 살지는 않았기에, 여성 전반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공정한 여성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 남성위주 성의식 파기와 1세대 저항

『토지』는 1897년 한가위 축제로 시작된다. 성질이 팔팔하던 농부 정한조는 단발하고 양복 입을 서울양반 조준구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데, 이 일로 석이네(정한조의 처)의 불행은 시작된다. 정한조는 멀리 조준구가 보이자 인사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 뺐던 것이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조준구가 평사리에 의병운동이 발발하여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분함을 결백한 정한조에게 뒤집어 씌웠고, 결국 정한조는 일본병사들에게 끌려가 총살된다. 석이네의 남편 정한조는 일제의 세력을 등에 업은 조준구의 분풀이 대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당시는 일제의 세력이 침투하기 시작한데다 오일장에 아내를 내보내지 않던 조선 유교적 가부장제 가치관이 표면화된 시대였다. 농사지를 땅도 재산도 없으며 남편은 의병활동 죄목으로 죽고 졸지에 과부가 된 석이네의 삶은 평탄치 않게 전개된다. 내용상 석이네는 남편이 총살되는

4) 박경리, 『토지』전21권, 나남출판, 2005를 텍스트로 삼았다. 이후로도 (몇 권 몇 쪽)으로 간략히 기술하겠다.

시점까지 등장하지 않는데, 당시에는 가정이 가족을 대표하는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갑오경장을 겪은 후였음에도 사농공상의 가치체계가 견고하였고, 여성들은 생물학적 결정론⁵⁾에 따라 무의식적 자동감시자가 되어 이성애 중시, 신분차별, 남녀성차별, 이분화 된 성별역할의식을 내면화한 시대였다. 부계로 이어지는 가문중시사상, 남성폭력의 일반화, 모성애와 현모양처의 여성성을 바람직하고 정상적이라 간주했던 것이다. 유교 가부장제가 구축한 ‘사람의 도리’란 파놉티콘에 감시당하고, 일제의 침략 세력이 미미한 힘을 보조해 주고 있는 시대였다.

신령에 관한 행사는 대행자인 무격(巫覡)에게 맡겨버리고 실행하는 것은 삼강오륜의 생활방식으로서 신비와 운명에 자신들 의지를 위탁하였으면서도 오로지 단 하나의 이성이며 실천과 노력을 도모하는 것이 유교적 인생관은 아이였었는지. 식자들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즐겨 쓰는 도리(道理)라는 말이 있는데 자식된 도리, 부모된 도리, 사람의 도리, 형제의 도리, 친구의 도리, 백성의 도리, 이 도리아말로 생활의 규범이다. 천재를 제신의 노여움으로 감수하듯이 무자비한 수탈 속에서 가난도 이별도 견디어야만 하고 도리를 준열한 계율로 삼아온, 이 자각(自覺) 없이 고행해온 무리가 조선의 백성이요 수구파의 넓은 들판이다. 조선 오백년 동안 씨 뿌려 놓은 유교사상의 끈질긴 덩굴이며 무수한 열매인 것이다. 이 공자의 서자(庶子)들이 지금 도도히 흘러들어오는 약육강식하는 무리를 맞이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사람의 도리로 대적한단 말인가. (4권62~63쪽)

5) 성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능이라는 입장이다. 개인 또는 집단간의 성적인 차이를 성기의 구조나 생식 기능의 차이 또는 성호르몬이나 유전자의 차이 등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강력하고 역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반면, 여성들은 성적 욕망이 없기에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남녀의 성적 정체성의 차이를 생물학적 성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자연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이라 보는 관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조영미,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2005, 15~16쪽.

석이네가 아내로서의 삶을 사는 1세대⁶⁾의 서사는 별당아씨와 구천이가 광에 가두어지는 사건으로 막을 연다. 별당아씨는 최참판댁이란 부유한 양반가의 며느리, 정실부인, 어머니란 풍요로운 페르조나⁷⁾를 버리고, 모성애마저 의심받을 만큼 여자로서의 성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다. 그녀는 묘향산 북쪽 꼬트머리에 쓸쓸히 묻히지만, 동학의 우두머리 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결코 불행하지 않은 생을 살다 갔다. 화전, 진달래, 꽃송이, 구름으로 되살아나곤 하는 별당아씨는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온 정조관을 파기하며 저항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에 비해 귀녀는 욕망실천형 인물로 여성정조를 신분상승의 도구로 이용한다.

귀녀는 “본시 양반과 종의 피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은 아”(2권97쪽)닐 것이란 인간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 여자로서 자신의 육체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신분상승을 꾀한다. 하지만 목표물 최치수는 강포수에게 ‘총 대신 너를 주겠다’며 귀녀를 몰화해 버린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귀녀는 최치수를 살해하라고 교사한다. 평산과 칠성에게는 몰육의 도구로, 같은 처지의 계집종들로부터는 감시와 배척의 대상이었던 귀녀.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 대한 원망 없이 생을 마감한다. 귀녀가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닌 죽음으로 결말이 맺어지는 것은, 그녀가 강철 같은 신분차별의식에 맞선 적극적이고 저항적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삼월이는 신분과 성차별의식으로 인해 파괴되는 삶을 산다.

삼월이는 최참판댁 계집종이기에 종놈 삼수와 공모한 양반 조준구에

6) 1세대는 『토지』1부 1897년부터 대략 2부 시작 전까지인 1909년까지 등장하는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별당아씨, 귀녀, 삼월이, 임이네, 윤씨부인, 함안댁, 영산댁, 월선, 김진사댁 두 청상, 김서방댁, 두만네, 석이네, 봉순네, 안산댁, 순이, 강청댁, 막딸네, 또출네, 흥씨, 야무네, 오서방댁, 우개동네가 해당된다.

7) 페르조나(Persona 외적인격)는 집단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집단에 의해서 요구되는 태도, 생각, 행동규범, 역할을 의미하며, 분석심리학 용어이다.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페르조나를 썼다 벗었다 하며 그때그때의 사회집단에 적응해 나간다.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부영 분석심리학의 탐구2』, 한길사, 2001, 30쪽.

게 손쉽게 겁탈 당한다. 이후 삼수가 데리고 살면서 조준구가 한번 씩 빌리는 성노리갯감으로 전락한다. 조준구는 당시 일제의 권력을 등에 업은 전형적 인물이며 삼수는 그런 조준구의 하수인이다. 삼월이는 한번 허신한 남자에게 일생을 걸던 조선여성의 정조의식을 지닌 데다, 착한 심성을 지닌 순종적 여인이었기에 더욱 비극으로 치달린다. 누구 씨인지도 모를 아이를 낳은 삼월이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싶지만 젖조차 나오지 않고 아이는 이질을 앓다, 죽기를 바라는 야박한 인심 속에서 싸늘하게 생을 마친다. 즉 삼월이는 일제에 동조한 지배적 남성위주 성의식에 철저히 파괴되고 유린된 것이다. 종이라는 계급의식에, 여인이란 성별의식에 순종만한 삼월이는 반미치광이가 되어 물에 투신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에 비해 임이네는 자유주의 성의식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임이네는 “젖을 먹다 잠이 와 젖꼭지를 문 어린 것의 뺨을 친” 후 “자식이고 뭐고 다 귀찮은 존재”(2권53쪽)라 투덜거린다. 임이네는 모성본능이 신화일 뿐 여성의 자연적 성이 타고나는 속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임이네는 살인죄인 남편 칠성으로 인해 거지, 매춘부의 굴곡을 겪기도 하지만 한 끼의 밥을 얻기 위해 그녀가 치마를 걷는 모습은 추하지 않게 묘사되고 있다. 여성 정조가 생명유지보다 소중한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임이네는 남편이 살인죄인이면 아내도 순절해야 한다는 유교 남성위주의 가치관을 거역하고 성을 팔아 생을 잇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비극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임이네의 육체는 여성 고유의 경험인 출산의 신비, 아름다움을 『토지』에서 유일하게 드러낸다. 칠성과의 섹슈얼리티⁸⁾에서는 짐승으로, 모성애는 탈신비화 하는 임이네

8)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교나 성행위와 같은 구체적 성행동을 포함하지만 보다 넓고 다양한 성적 욕망과 실천, 정체성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성적 욕망을 창조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방향 지우는 사회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송명희, 『섹슈얼리티·젠더·페미니즘』, 푸른사상, 2001, 60~61쪽.

가 출산의 위대함을 지닌 것은 흥미롭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성에서 모순되고 양면적이라 여겼던 기존가치의 이분법에 대한 반박이며, 여성성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극은 임이네가 재물의 노예가 되면서 이루어진다. 재물의 노예가 된 임이네는 결핵성 복막염을 앓다 처참하고 쓸쓸한 생을 마감한다. 임이네는 보수적 성의식에 저항하고 그 저항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여인이었다. 그에 비해 윤씨부인은 모성본능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죄인 같은 삶을 산다.

윤씨부인은 과부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최치수와 구천이를 따듯이 풀어주지 못했다는 모성에 결핍을 자신만의 결함으로 인식하여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산다. 윤씨부인에게 내면화된 유교가치관이 빛은 비극인 것이다. 유교가치관은 윤씨부인이 김개주란 남성의 겁탈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자책하도록 그녀의 생각을 변질시켰고, 남성보다 뛰어난 자신의 경영능력을 ‘최씨문중의 고공살이’로 과소평가하도록 생각을 부정적으로 변질시켰던 것이다. 내면화된 가부장제 가치관에 침몰당한 윤씨부인은 호열자로 죽는다. 하지만 그녀는 자립적 삶을 사는 여가장의 긍정성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에 비해 함안택은 현모양처 가치관을 내면화하였기에 비극적 삶을 산다.

함안택은 양반 권위를 떠받들며, 무서운 가난과 포악한 남편 평산을 불평 없이 견뎌낸다. 하루 종일 집 안팎의 일과 삼베노동을 혼자서 묵묵히 해내고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어진 아내, 훌륭한 글 선생’이다. 함안택은 진정 현부인을 본받으려 했고 부덕을 닦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설과 같은 욕정이며, 남편의 죄를 함께 짊어진 순절이었다. 함안택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기저로 하는 현모양처의 허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그에 비해 영산택은 주모라는 직업 때문에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산다.

영산택은 남정네가 번 돈으로 밥 한 끼 먹지 못했고, 돈 뺏어가서 계

집질하고 노름하는 남편 때문에 한이 맺혔기에 ‘대역죄인보다 살인죄인보다 나쁜 놈은 연약한 계집 벌이시켜서 놀고먹는 놈’이라 외친다. 이는 주막일과 집안일이라는 이중의 여성노동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평가절하 하는 남성에 대한 비판이며, 여성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에 항의한 외침인 것이다. 또한 무위도식하는 남편을 향한 외침은 기존가치관에 대한 저항이라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월선은 종교차별로 인해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간다.

월선은 월선네(어머니)가 무속인이기에 군중으로부터 배제되는 유교적 종교차별을 받는다. 당시엔 샤머니즘이 자연신에 대한 숭고한 믿음인 동시에 경계해야 할 천형이었다. 사랑하는 용이와 혼인하지 못하는 것도, 용이와 육례로 만난 강청택의 횡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도, 용이 아들을 낳은 임이네에게 벗겨 먹히는 것도 자신이 무속인이란 죄의식이 작용한 때문이었다. 월선은 평생을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월선도 다리병신 남편을 버리고 첫사랑 용이를 찾아 도망쳐 나오기도 한다. 이는 순응적인 여인이라도 가부장제 성윤리를 벗어난 삶을 선택하는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비해 김진사댁 두 청상은 대를 잇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빠져 산다.

김진사댁 두 청상은 가난한 선비 집으로 시집와 대를 잇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빠져 스스로 폐쇄적 삶을 산다. 조선 사대부 여인으로서 매우 정상적이었기에 불행했던 것이다. 양반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에 묶여 자신을 틀 속에 가두는 그들은 ‘송장과 진배없는 인생’을 살다가 호열자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다. 김진사댁 두 청상처럼 사대부 여인들만 시대가 요구한 정상적 삶으로 인해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김서방댁은 마름의 처로서 정상적이었기에 불행한 인물이다.

김서방댁은 부지런히 살았고 ‘계집은 자식 놓을 때 자식 놓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도 가장 밑에서 살아야 좋다’는 구습여인이다. 남편 김서방이 호열자로 어처구니없이 죽고 난 뒤, 억울하게 최참판댁에서 빈 몸

으로 쫓겨날 때에도 김서방댁은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였지, 쫓아내는 조준구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이후 김서방댁은 거리에서 떡장사로 근근이 연명할 때에도 이와 비슷하게 행동한다. 왜놈 순사가 발길질로 자신의 떡함지를 이유 없이 엎어버리고 거지취급해도 참아내는 것이다. 즉 김서방댁은 조선여인으로 사회화되면서 갖게 된 ‘인내’라는 미덕이, 이제는 일제라는 새로운 폭력에 힘없는 조선여인이 대항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서방댁과 마찬가지로 두만네도 일제라는 새로운 권력에 구습으로 투쟁한다.

두만네는 평사리 아낙네 중에서 가장 후덕한 여인이기에 그녀의 집은 여성공동의 일터로 고정되어 등장한다. 항상 근면한 두만네지만 집 안팎을 깨끗하게 치우라는 통문을 우연히 딱 한번 지키지 못해, 왜순사에게 뺨을 맞게 된다. 이때 두만네는 큰 아들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서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두만이를 찾으러 간다. 이것은 “꼭 늙은 가장에게 맞은 아내가 아들집에 가서 쉬는 것처럼”(6권206쪽) 저항한 것이다. 즉 조선여인은 일제의 억압에도 유교 가부장제 가치관에 따라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세대 여인들은 가부장제 권력이 지배적이며 일본세력이 보조하는 시대에 사람의 도리지킴이란 감시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갔다. 어떤 이는 성의식의 자유화로 저항하고, 어떤 이는 신분을 전복하겠다는 의지로 저항하고, 어떤 이는 여성노동의 가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며, 때로는 순응도 하며,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성실히 살아갔다.

Ⅲ. 아니마의 비극성 인식과 2세대 저항

석이네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는 2세대⁹⁾는 간도 용정촌의 대화재로

9) 2세대는 『토지』2부 1910년부터 3부 끝까지인 1929년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인들

최서희가 거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이어진다. 이 무렵은 일제의 지배가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거기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1세대의 가부장제 의식이 함세하여 조선여성을 감시하고 조정한다. 즉 이민족의 권력장이 넓어졌기에 조선 ‘여성의 육체적 정조’ 지킴을 파놉티콘으로 설정하여 더욱 범위를 좁혀 감시하게 된다. 특히 일부일처제가 요구한 다른 남성과의 접촉이 아닌, 일본남성과의 접촉을 감시하게 되었다. 조선 사회전체가 조선 여성의 정조 감시자가 된 것이다. 이는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서 간도로 이동한 경우에도 공통된 의식이었다. 따라서 조선여성의 육체에 가해지는 권력은 더욱 다각화 다변화되었고, 그에 맞춰 저항하는 여성의 움직임도 가열해진다.

석이네는 최하위계층으로 전락한다. 손에 물마를 날 없고 얼굴에 피멍 가실 날 없는 배 굽는 하루는, 석이네 집의 일상이다. 남의 집 빨랫감을 빨아 품을 버는 석이네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석이가 최서희의 도움으로 학교선생님이 된다. 석이네는 아들을 장선생이라 호명하는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산다. 그러다 양을레(며느리)가 집을 나가면서 석이네는 다시 고난의 길로 접어든다. 양을레는 석이가 최참판댁 침모 딸이었으며 화류계 계집인 봉순이를 사모한다는 사실에 분노해 집을 나가고, 남편 석이가 학교에서 쫓겨나도록 만든다. 이후 양을레는 석이를 쫓는 나형사의 첩이 된다. 석이는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나형사의 집요한 감시로 다시는 조선에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때문에 석이네는 남희, 성환과 함께 사위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된다. 사실 자신의 집에 얹혀사는 사위다. 그럼에도 석이네는 큰딸 귀남네가 과부되는 것이 걱정스러워 사위와 귀남이만 편애하는 딸과 몰인정한 사위를 참아내는 것이다. 석이네는 일제라는 사회통제세력 때문에 남편과 아들

이 주를 이룬다. 코보 딸, 심금녀, 두리, 임명희, 최서희, 민지연, 옥이네, 기화, 장씨, 송애, 여옥, 기성네, 서울댁, 홍성숙, 임이, 배설자, 봉춘네 딸, 화심, 월화, 향심, 금홍이, 막일꾼의 처자, 인이 처, 장이, 김숙희, 언년, 정호 어머니, 이상현의 처, 영광네, 양소림, 보연, 강혜숙, 파주댁, 중년 아낙, 영호네가 해당된다.

을 잃었고, 이제는 가부장 의식에 싸인 사위와 딸 때문에 수모를 받는 것이다. 즉 조선여성에 대한 권력은 가부장제와 일제의 강압세력이 공모해 더욱 견고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들었소. 나릿선에서도 들었고 동네 들어서자마자 입 있는 사람은 다 말합니다. 내 짐작 안 한 일은 아니지마는, 불쌍한 울 어매! 이런 영화 불라꼬 오동지 설한풍에 빨래품 들어감씨로 우리를 키웠는가! 조상도 무심하고 하느님도 무심하지, 부치 곁은 울 어매, 눈이 등장 곁은 아들자식 어디 가고 늘그막에 눈칫밥이 웬말인고오!” 복연의 눈에선 샘솟듯 눈물이 솟아온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도 속상하다는 듯 울타리 밖을 바라보고 서 있던 귀남네 “나만 직일 년 됐다.” “어지간히 했이른 남들이 그럴까, 아이고오 아이고.” “남들이 머라겠는지 모리겠다마는 하기 좋은 기이 념의 딸 아니더나. 시끄럽다, 념의 딸 믿지 마라.” 울다가 복연은 어미 얼굴을 쳐다본다. “개도 무는 개는 돌아본다요. 어매가 그리 아홉 폭 치마로 감싸니께 만만키 생각하고 사우도 장모를 대수로 안 여기는 거 아니겠소. 어매가 사우 번 밥 얻어묵고 삼니까. 따지고 보든 처가 살이하는 건데 어매가 기죽어 지낼 턱이 없는 기라요.” 귀남네 얼굴이 벌게진다. “그만 해라. 이웃 사람 듣겠다. 그런 소리 자꾸 해싸으면 동기간에 의이만 끊어지고, 자아 방에 들어가자.” 성환 할매는 딸의 팔을 잡아끈다. (14권285~286쪽)

코보 딸은 가부장제와 일제가 공모한 전형적 여성억압을 보여준다. 코보는 “술이 과해 딸을 청루에”(10권131쪽) 팔아먹었다. 청루는 일인이 몰고 온 유곽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코보 딸은 청루에서 몸쓸 병에 걸리고 이를 비판해서 물에 빠져 죽기 때문이다. 즉 코보 딸은 조선여성의 사물화에 두 세력이 상호협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심금녀는 두 공모세력이 성립한 환경에 의해 기생이 된다.

심금녀는 아버가 투전으로 가산을 탕진했기에 술집에 팔린다. 당시엔 아버지가 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금녀는 술집에서 도

망쳐 첫사랑 윤이병을 찾아가지만, 윤이병의 책임감 없는 환락의 추구 앞에 처녀성을 잃고 김두수의 여편네라는 오욕 속에 산다. 그러다 김두수로부터 다시 도망친 금녀는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대한다. 심금녀는 조선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설 것을 각오하는 당찬 여인으로 변모한다. 이는 금녀가 치욕적인 과거를 이겨내고 자립적 여인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금녀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하지만 두수에게 다시 포로가 된 금녀는, 결국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고 죽는다. 심금녀를 평범한 여인으로 살 수 없게 만든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정조유린이 가부장 권력에서 시작되어 남성의 쾌락을 위해 진행되다 끝내는 조선여성을 일본밀정의 희생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만든 시대였던 것이다. 평범한 여인의 정조가 타인의 욕망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두리는 아버지의 욕망 때문에 파괴된다.

두리는 아버지 봉기가 삼수에게 두리를 은근슬쩍 내세워 최참판택의 문전답도 얻어 부치고 쌀말이나 얻은 것이 화근이 되어 성폭행을 당한다. 삼수는 두리가 자신에게 시집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봉기는 종놈에게 그것도 결혼한 종놈에게 딸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며 삼수를 면박 준다. 이에 화가 난 삼수는 두리를 ‘시체의 염을 할 때처럼 묶어’ 겁탈한다. 딸의 처녀성은 거래될 수 있는 부계 재산이었고, 그것을 훔친 것은 일제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강박감으로 과대평가된 일제권력의 버려진 한 귀퉁이 삼수였던 것이다. 하지만 두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겁탈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진보적 의식을 보여준다. 정조유린을 당한 일은 떠들어보아야 여자망신일 뿐이라 여겼던 시대였다. 즉 두리는 시대 앞에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만 당당히 저항한 것이다. 그에 비해 임명희는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항을 개시한다.

가사와 선생 임명희는 결혼 재촉에 몰려 조용하의 아내가 된다. 조용하는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처럼, 동생 찬하로 인해 명희에게 가

는 집착이 강해지는 인물이다.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비정상적 관계는 외부에서 실려 오는 무거운 도덕적 공포를”(11권11쪽) 아무 죄 없는 임명희가 느끼게 만들었고, 역관의 딸이 조선왕조의 피가 흐르는 대일본제국의 귀족이며 대실업가인 조용하에게 시집왔다는 사람들의 시샘은 그녀를 박제된 학이 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만인의 부러움을 받는 신데렐라 명희지만 속은 생명이 말라버린 학이 된 것이다. 이에 명희가 이혼을 요구한다. 그러나 조용하의 대답은 능욕으로 돌아온다. 명희는 박제된 학으로 살기에는 창조적 생명력을 지닌 여인이라 어려웠고, 정신적 간음을 한다는 사회의 시선은 명희를 옹아매어 희생양이 되게 하였지만, 명희는 상처를 극복하고 유치원을 경영하며 조선인을 돕는 주체적 여인으로 성장한다. 이는 이혼녀를 멸시하던 시대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최서희는 주체적 삶을 사는 전형이다.

최참판댁 마지막 핏줄 최서희는 친가족 사람들이 모두 죽고 마침내 고아가 되었을 때, 외가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다. 별당아씨가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에 외가가 나서서 외손녀를 보호할 입장이 아니라는 조선의 유교사상 때문이다. 결국 최서희는 외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조준구란 일본세력에 밀려 이산의 삶을 산다. 최서희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¹⁰⁾는 일생을 두고 따라다니는 혐오감이 된다. 특히 트라우마는 콧수레 조병수에 대한 공포본능을 일으키게 한다. 최서희가 조병수를 괴물로 인식하는 것은 서희에게 일제 권력이 괴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이후 최서희는 봉순이의 딸 양현을 자신의 딸로 귀애하며 키우고 지리산 조선인을 돕는 대모로 성장한다. 그에 비해 민지연은 지리산에 들어와

10) 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외상)는 정신생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강한 자극의 증가를 가져오는 체험을 가리킨다. 그런 강도 높은 자극은 익숙한 방식으로 해소되거나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에너지의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교란하여, 신경증을 유발한다. (프로이트,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1997, 392쪽)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정희, 「트라우마와 여성 성장의 두 구도」, 『여성문학의 새로운 시각』, 월인, 1999, 324쪽에서 재인용함.

대모가 된다.

민지연은 처음엔 도솔암 일진스님을 찾아 산으로 들어왔다. 일진스님은 십년 전 결혼식 닳새를 남겨두고 속세를 버린 신랑이다. 민지연은 분한 마음에 자신을 버린 보복을 하고자 일진스님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지연은 보복은커녕 자신처럼 버려진 외로운 아이를 키우며 생을 이어간다. 민지연은 조선인(일진)에게 좌절감을 심어주어 개인 인생행로를 달리하게 만든 일제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인 것이다. 그에 비해 옥이네는 일제의 폭력으로 유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옥이네는 일제에 의해 간도로 내몰리고 용정촌 대화제로 일자리마저 박탈당한다. 그러던 중 길상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정성에 마음을 열고 육체를 허락하게 된다. 생산물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서는 시기에 샴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옥이네는 감히 길상과의 혼인은 꿈꾸지 않는다. 아이 딸린 과부가 총각과 혼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여겼고, 한 지아비를 섬기지 못한 여인이 불행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믿는 구시대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후 옥이네는 선교사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옥이를 훌륭히 키워내는 어머니로서의 삶만을 산다. 옥이네는 구시대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기화는 구시대적 가치관을 답습한 기생이라 파괴된다.

기화(봉순)는 어릴 적 거복이의 돌팔매질로 이마 한가운데에 흉터가 있다. ‘계집이 면상에 흉이 생기면 팔자가 세어진다’는 복선대로 기막힌 삶을 산다. 평생을 비단옷에 분단장하고 노래 부르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꿈꾼 기화. 천부의 교태를 지녔기에 사미승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든 기화는 전참봉, 서의돈, 이상현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외롭게 생을 마감한다. 진주의 예기, 명창 기화는 남성이 원하는 이름답고 선하고 욕심 없는 진정 착한 여인이었기에 불행했다. 즉 남성이 욕망한 아 니마¹¹⁾이기에 불행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장씨는 양반임에도 남성이

11) 사람이 외적인격(페르조나)을 가지고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내

욕망한 아니마이기에 또한 파괴된다.

장씨는 요조숙녀요 미인이란 것이 원인이 되어 운흥사의 중 본연과 내연관계라는 헛소문이 돌게 된다. 남편 송영환은 아내의 소문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생각에 골몰하여 분별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결국 장씨 부부는 아편쟁이가 된다. 사디스트 송영환과 마조히스트 장씨로 타락한 것이다. 송영환이 거짓소문인 줄 알면서도 의처증에 걸린 것은 조선 남녀의 정조관념이 엄청나게 양극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정조의 파수꾼은 대사회였음을, 여성에겐 아니마의 탈피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송애는 조선사회가 일본남성과의 성관계를 감시하는 파수꾼이었음을 보여준다.

송애는 공노인의 양딸로, 길상과의 결혼을 꿈꾸었으나 실패하고, 이 일로 윤이병 선생과 결혼하여 길상이 보란 듯이 잘 살겠다 마음먹지만, 결국은 윤이병을 조종하는 김두수에게 겁탈 당한다. 송애는 일본 밀정 김두수의 “아주 쓰기에 생광스런 卍나폴”, “향락의 도구”(7권117쪽)로 취급되다 카페 여급으로 팔린다. 그렇고 그런 장소를 전전한 송애는 ‘사내라면 모두 개’니 세상의 남자는 다 죽기를 바라는 왜헌병의 여편네로 타락한다. 왜헌병의 여편네란 조선 “제일 밑바닥 색주가보다 못한”(8권 144쪽) 여인이기에 사람들의 야유와 멸시를 받는다. 송애는 성의 상실로 추락을 거듭하고, 일제권력에 조종당하는 타락한 인형이 된 것이다. 일제는 조선여성의 정조유린을 일상화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여옥은 일제의 정조유린이 성고문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옥은 개화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사위를 동경 유학까

면세계에도 외적인격과 매우 대조되는 태도와 자세, 성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내적인격이라 부른다.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는 바로 이 내적인격을 말한다.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가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내적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 인격(아니마)이,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 인격(아니무스)이 내적인격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부영, 앞의 책, 30~31쪽.

지 보낸다. 하지만 남편은 동경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여옥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여옥은 일본 유학생의 다반사적인 이혼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악몽 같은 세월을 털고 일어난 여옥은 전도사업에 투신한다. 그러나 전도사업은 일제가 금지하던 것이다. 그래서 여옥은 옥에 갇히고 성고문을 받는다. 여옥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야 겨우 병보석으로 풀려난다. 살아 있는 것이 기적만 같은 여옥을 최상길은 보살핀다. 이를 계기로 여옥과 최상길은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로 남는다. 이혼녀와 이혼남의 사랑이 이성애를 넘어 우애의 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옥은 일제의 국가권력과 남성을 가족의 리더로 인식한 헌신적 사랑의 일방향성이 비극의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 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해서는 악전고투해야만 하는 시대였음을, 여옥의 저항적 삶을 통해 보여준다. 그에 비해 기성네는 헌신적 사랑의 일방향성이 비극임을 드러내는 전형이다.

기성네는 첩 서울네로 인해 민적까지 파인다. 마음 좋고 일 잘하는 기성네. 시부모와 친척들의 사랑을 받지만 남편과 아들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하지만 아무 것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생각하며 산다. 남편 두만의 끊임없는 외도와 구타와 욕설을 자신의 팔자로 묵묵히 견디는 기성네는, 현모양처의 숭상이 머슴 같은 불행한 여인들을 양생하는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서울댁은 첩으로서 현모양처다.

서울댁은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두만의 둘째 부인으로 산다. 그래서 더욱 헌신적이다. 불리한 자신의 처지이고 보면 남편의 몸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삼십년이 지나고 자신이 호적에 본처로 오른 이후 남편 두만은 기생 율화를 소실로 들인다. 이제 서울댁은 ‘소유에 대한 상실감’으로 철골같이 말라 사람의 형상이 아니게 된다. 영웅호색이라 불리는 남성적 행위는 남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사물화 되도록 만들고 양성 모두를 피폐한 삶으로 몰

아갔던 것이다. 그에 비해 홍성숙은 영웅호색이 여성에게도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성숙은 야망이 강한 여자다. 성악가로 대성하기 위해 유부녀임에도 조용하를 유혹한다. 가난하지도 지체가 형편없는 것도 아닌데 명성이나 재력에 약한 홍성숙은 조용하와의 불륜에 떳떳하다. 오히려 불륜의 욕은 홍성숙의 남편이 듣게 된다. 쓸개 없는 놈이니, 병신 같은 놈이니 사람들은 놀려댄다. 하지만 홍성숙은 이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다만 생계를 위해 남편에게 예전보다 좀 더 잘해줄 뿐이다. 그에 비해 임이는 여성의 성 문란을 탐욕과 결부시켜 보여준다.

임이는 ‘기생이 되면 호강한다’는 말에 선망의 눈빛을 띠고, 청국인 노대인을 유혹한다. 하지만 노대인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자 김두수의 하수인과 도망가 왜놈의 꼬나풀로 산다. 남편 허서방과 아들 구야를 버리고 나온 임이는 갈 곳 없는 노년기엔 동생 홍이에게 얹혀산다. 그러던 어느 날 금반지 사건으로 어린 조카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한다. 임이는 모두가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임이는 육체의 주체였던 반면 정신의 타자였고, 자신의 성을 도구로 사용하여 생활의 변화를 꾀하였지만 결국은 물질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배척된 것이다. 임이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빼앗는 위치를 원하였지만 결국은 왜놈의 도구로 사용되다 버려지는 일제 꼬나풀 조선여인의 비극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배설자는 일제 밀정이었던 조선여인의 비극을 첨예하게 보여준다.

배설자는 괴기와 사악함이 보일락 말락 떠도는 얼굴에 아름답기 그지 없는 몸매를 지닌 팜프파탈¹²⁾의 전형이다. 배설자는 허정운을 유혹하려다 실패하지만 이전에는 많은 남성들을 유혹하고 파괴한 인물이다. 배설자는 욕망을 위해서만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 생각한다. 인생을

12) 악녀를 팜프파탈이라 한다. 팜프파탈은 매우 매력적인 미녀로, 신비한 매력으로 남자들을 홀려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여자, 남성의 운명을 파괴하는 여성이다. 타마키 호리에, 정은지 옮김, 『남자들은 왜 악녀에게 끌리는가』, 한언, 2004, 7~52쪽

사랑하는 쾌락주의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곤도와 이십여년간 동거한 배설자는 “부친이 죽은 후 만주 벌판에서 썩은 고기를 쪼아 먹는 까마귀같이 살았을 무렵, 관계한 사내 중의 한 명에게 칼에 찔려”(20권223쪽) 죽는다. 배설자의 죽음은 일제 앞잡이든, 밀정이든 조선인은 일제의 만행에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설자는 피의 배반이란 점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이렇게 2세대 여성들은 일본의 세력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선을 장악하는 시대를 살았다. 그녀들은 조선여인의 육체적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감시의 시선 아래에서 때로는 파괴되고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지만 아님 탈피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또한 자립을 추구하고, 주체적 여성으로 성장하며, 대모적 여성으로 변모하는 등 각기 성실히 살아갔다.

IV. 주체적 · 사회적 자립과 3세대 저항

석이네가 할머니로서 삶을 사는 3세대¹³⁾의 서사는 일본 과자점에 온 조선 아이들이 제 돈 내고도 빌어먹는 거지 취급을 받는 사건에서부터 연결된다. 조선놈이면 분풀이 상대로 안성맞춤인 시대, 즉 일본 세력이 권력을 남김없이 거머쥐었던 시대였다. 조선남성은 독립운동 차 부채가 전반화 일상화되었고 일본은 절대적 악이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여성의 육체는 일제의 폭력아래 허수아비가 되었기에 지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육체를 넘어 조선여성의 정체성, 자립성 찾기란 ‘정신적 정조’지킴이 파놉티콘의 감시대상이 된다. 바꿔 말하면 조선여성의 일제에 대한 의식의 무장화를 독려한 시대였다.

석이네는 남회를 빼앗긴다. 세 살 때 사타구니에 난 종기를 그대로 방

13) 3세대는 『토지』4부 1930년부터 5부 끝까지인 1945년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인들이 이 주를 이룬다. 송인숙, 남희, 옥이, 모화, 양현, 영선, 숙이가 해당된다.

치해 아이를 위태롭게 했던 양을레는 일본인 정부와 고급요정을 차린 후 남희를 여학교에 보내겠다고 데려간다. 양을레가 강제로 데려간 남희는 철저히 망가져 돌아온다. 남희는 양을레의 정부와 친분이 있는 일본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성병에 걸린 채 넋을 잃고 돌아온 것이다. 대일본제국의 군인에게 열여섯 어린 조선여성은 당연히 소유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소비재였다. 남희는 조선여성을 부속품화 하는 일제가 빚은 참극인 것이다. 이후 성환이마저 학병으로 끌려가자 석이네는 결국 두 눈이 먼다. 석이네의 실명은 일제말기의 가혹한 수탈을 표상하는 아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눈이 먼 채 석이네는 광복 때(작품 끝)까지 살아 남는다. 이는 조선여성의 시대를 체험한 몸의 견고함을 보이는 것이며 동시에 꺾이지 않는 저항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성환 할매가 눈이 멀었다는 말을 듣고도 연학은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솔암에 다녀온 후 찾아갔다. 성환 할매는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린 것처럼 보였다. 도솔암에 다녀오는 길이라 했지만 남희가 어떻게 든가 묻지도 않았다. 연학은 성환 할매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기운 내 이쇼.” “……” “조금만 참으시이쇼. 일본놈들 곧 망할 겁니다. 그러든 석이도 돌아오고 성환이도 돌아올 겁니다.” 그 말에 심봉사처럼 눈을 뜬 것은 아니었지만 희미한 희망의 줄을 거머잡은 듯, 그러나 성환 할매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안 속겠다는 그런 몸짓이었다. 이제는 속지 않겠다. “남희도 잘 있습니다. 병도 나았고.” 아무도 모르는 병명, 남희 본인조차 모르는 병, 허정윤과 자기만 아는 그 참혹한 병명은 어떠한 무게보다 무겁게 연학을 휘청거리게 한다. “아이가 마음만 좀 돌리묵으면 될 겁니다. 신경이 아주 약해져서.” 말을 하면서도 연학은 남희가 과연 할머니 품에 돌아올 수 있을는지 믿을 수 없었다. (20권162~163쪽)

송인숙은 일제에 대한 꺾이지 않는 저항의식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 꽃다운 처녀였던 인숙을 김두수는 그의 방식대로 강탈한다. 그러곤 김두수는 송인숙을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정식처로 입적시켜

아들딸을 낳고 산다. 하지만 김두수는 가혹하게 송인숙을 다룬다. 송인숙이 마음을 폐기처분했기 때문이다. 조선여성의 육체는 명명백백 일제의 것임이 기정사실이기에 송인숙은 정신을 지키는 내밀한 저항을 행한 것이다. 그에 비해 남희는 정신을 사수하는 저항을 간호사가 되겠다 포부로 표면화한다.

남희는 성폭행 당한 후 성병이 치유되는 어느 날 사진관 쇼윈도에 있는 결혼사진을 주시한다. “한손에는 꽃다발 한손은 신랑 팔을 잡고 있는 신부, 남희는 한순간 부르르 떨다가 그러나 결혼사진을 끝없이 바라보고서”(21권307쪽) 있다. 이는 일제에 강탈당한 여성성을 되찾으려는 심리의 촉발이며,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성 회복의 조심스런 움직임이다. 그에 비해 옥이는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자립여성으로 재현한다.

옥이는 남편 두메가 독립운동가이기에 남성부재의 삶을 사는, 일제시대 강인한 조선여성상의 전형이다.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옥이는 일제의 권력망이 조선여성을 강인한 투사로 길러내는 역효과를 양산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모화는 강인한 여성을 길러내는 역효과를 과부재가에서 보여준다.

모화가 처음 결혼한 남편은 모화 모녀의 재산을 노린 자였다. 모화는 야간도주하여 통영에 오고, 웅기를 낳고 술장사를 하며 산다. 몽치보다 두 살 위의 과부 모화는 몽치가 같이 살자하는 말에 기둥서방이나 해 달라고 한다. 주정뱅이의 횡포에는 칼을 들고 맞서는 모화지만 몽치가 총각인 것에 항상 죄의식을 갖기에, “모화는 같이 산다 했고 몽치는 장가 들었다”(19권306쪽) 한다. 총각이 과부와 사는 것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모화는 한시도 놀지 않는다. 모화는 과부의 재가가 총각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진보적 성의식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양현은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시대에 저항한다.

양현은 최서희의 양딸에서 이상현의 딸로 호적이 바뀌는 아픔을 겪지

만 여의전의 학생, 여의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다. 백정의 피를 가진 영광과 기생의 피를 가진 자신이 운명이 비슷하다 생각하여 영광을 사랑하고 집안에서 원하는 윤국과의 결혼을 거부한다. 양현은 출생이란 계급의식에 괴로워하지만 조선의 결혼 제도에 반기를 들었으며, 개인병원의 의사로 당당히 살아간다. 자기 존재감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가치를 인식한 진보적 여성인 것이다.

그밖에, 영선은 관수가 아무 말도 없이 강쇠의 집으로 데려가 혼인시킨다. 본인의 결정권 없는 부모중심의 유교 가부장제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숙이는 아버지가 주막에 버리고 떠났기에 주막집 양녀가 되는데, 이는 일제하의 일상화된 가난 때문에 흩어져야 했던 조선 내의 이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3세대 여성들은 일본이 권력을 송두리째 거머쥐고 있는 시대에 조선여성의 정신적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감시의 시선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녀들은 절망적이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강탈당한 여성성을 되찾으려는 의지적 삶을, 주체적·사회적 자립을 일구는 삶을 살아갔다.

V. 나오며

석이네는 자신의 이름조차 호명 받지 못한 조선여인이지만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계급적 통제가 아무리 강해도 이겨내는 여인이었다. 조선여성의 삶은 이처럼 권력에 대한 순응과 저항이 교차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부류의 억압에 조금씩 진보하는 유형화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창조적인 반항을 하고 있다. 원인은 같으나 해결책이 다른 것이다. 누르는 세력이 클수록 튀어 오르는 힘도

세찬 것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다. 특히 여성은 어떤 파놉티콘의 감시 아래서도 정형화, 유형화되지 않는다. 다채롭고 차이나고 지연되는, 결코 틀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임을 보인다.

『토지』는 조선여성의 페르조나가 노동자, 어머니, 아내, 며느리, 남성의 조력자에서 여성주체로 변모하고 있음을, 조선 과부의 삶이 남성이 디비시 업어오는 수동적 삶에서 적극적 삶으로 변화함을 보인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답게’는 세대를 이어가도 여성의 몸에 잔존하여 영향을 미쳤다. 『토지』전체 세대에서 남성의 축첩, 계집질은 신분을 넘어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답게’ 속에 내재된 인내의 미덕 때문이며, 전 세대를 걸쳐 여성의 노동을 당연시하는 것은 ‘어머니답게’ 속에 각인된 희생의 미덕 때문이며, 남성의 가정폭력을 묵인하는 것은 ‘아내답게’ 속에 매몰된 유순의 미덕 때문이다.

박경리가 『토지』에서 부정적으로 본 것은 일방향적 현모양처의 삶이었으며, 물질에 의해 생겨난 탐욕이었으며, 성행위 또는 성별역할의 위계를 설정하고 지지하는 일부일처제의 정조관이었다. 거기에 일제를 등에 업은 억압하는 자들이었다.

『토지』는 대사회폭력에 여성 개인의 저항이 일탈로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개개인의 지속적인 저항은 결국 사회변화를 일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박경리, 『토지』 전21권, 나남출판, 2005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월인, 1999, 324쪽
김원홍·이인숙·권희완 공저,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 미셸 푸코, 김부용 옮김,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9
_____, 박정자 옮김, 『비정상인들』, 동문선, 2001
_____,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2004, 13~309쪽
-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1996
_____,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출판사, 2006, 60~66쪽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과 남성을 위한 여성학』, 중앙적성출판사, 1996
- 송명희, 『섹슈얼리티·젠더·페미니즘』, 푸른사상, 2001, 60~61쪽
- 수잔 브라운밀러, 편집부 엮음,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 Elizabeth Wright 편저, 박찬부·정정호 외 옮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한신문화사, 1997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자, 『여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1993
- 유제분 엮음, 김지영·정혜옥·유제분 옮김,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 페미니스트들』, 현대미학사, 2001, 25~95쪽
-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부영 분석심리학의 탐구2』, 한길사, 2001, 30~31쪽

- 정진성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 조주은,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조은주의 여성, 노동, 가족 이야기』, 민연, 2007
- 캐롤린 라마자노글루, 김정선 옮김,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문예출판사, 1997
- 콜린 고든 편저, 홍성민 옮김,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답』, 나남출판, 1995
-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편저, 탁선미 외 옮김, 『젠더연구-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나남, 2002
- 타마키 호리에, 정은지 옮김, 『남자들은 왜 악녀에게 끌리는가』, 한언, 2004, 7~52쪽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96~117쪽
- 툼 디그비 엮음, 김고연주·이장원 옮김, 『남성 페미니스트』, 또하나의문화, 2004
- 하이디 하트만·린다번햄 외, 김혜경·김애령 엮음, 『여성해방이론의 쟁점-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태암, 1990
-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
-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2005, 15~16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sistances of Female
Subaltern Subject in *The Land* by Park
Kyung-ni

Lee, Mi-Hwa

The Land by Park Kyung-ni describes how the Japanese rulers invaded Korea and controlled it through cunning fear manipulation. The Japanese rulers also tried to make Chosun crack and divide inside through their puppets and secret agents so that they would not be the direct target of blame.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kind of life Chosun women led under the power, supervision, and control forced upon colonized Chosun. It's noteworthy that the lives of female subaltern subjects such as Seogine didn't all end up in tragedy. It's because they decided to live on in the difficult, harsh era even though they were Chosun women whose names were hardly called by anyone. The lives of Chosun women were interlaced with conformity to and resistance against authority. It's thus become apparent that women, under any kind of supervision of panopticon, don't be formalized or typified and are "humans" that can never be controlled within a frame being multifaceted, differentiated, and delayed.

Key Words : Park Kyung-ni, *The Land*, subaltern, power, supervision, fear manipulation, Chosun women, conformity, resistance